

시론

광주 AI 산업을 이끌 선도기업이 있어야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 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때부터 광주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거점도시 육성에 청신호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올해 초 전자신문이 AI 관련 전문가들에게 서면조사를 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육성해야 할 분야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인재와 생태계를 꼽았다. 유능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때 AI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애틀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IT 관련 종사자가 약 20만 명으로 샌프란시스코의 30만 명에 이어 미국 2위다. 아마존을 필두로 인포시스, 티모바일, 코스트코, 노드스트롬, 익스피디아 등의 본사가 시애틀이다. 시애틀 인근 레드먼드에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있다. 시애틀 교외 남쪽 켄트에는 아마존 창업자가 만든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있고, 스페이스X의 지사도 있다. 시애틀이 ‘세계 클라우드의 수도’를 넘어 우주산업의 스타트업으로 부상 중이다.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시애틀은 IT 산업과 거리가 먼 도시였다.

초기에는 농업과 수산업 도시였고, 산림 벌목으로 재재소가 많이 생기면서 목재 생산지로 알려졌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수 공장도 들어섰다. 1916년 보잉사가 설립되면서 시애틀은 항공산업 도시가 됐다. 당시 항공기 몸체는 전나무로 만들었는데 시애틀에 질 좋은 나무가 많았다. 시애틀의 지리가 만든 결과다.

시애틀이 IT 도시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는 MS와 아마존이 제공했다. MS는 1975년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설립됐다. 종업원은 3명이었다. 유일한 납품처였던 컴퓨터 생산업체 MITS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3년 뒤 매출은 100만 달러로, 종업원은 13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회사를 자신들의 고향 시애틀로 옮겼다. 앨버커키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전을 감행했다. 1979년 1월이었다.

15년 후인 1994년 아마존이 시애틀에서 창업했다.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고향인 뉴멕시코 앨버커키가 아닌 시애틀을 택했다. 시애틀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MS가 이전한 후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프로그래머들이 몰려들었다. 스타트업도 생겼다. 이들에게 자본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도 등장했다. 신산업 생태계는 아마존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됐다. MS와 아마존이란 쌍두마차는 시애틀을 ‘제2의 실리콘밸리’로 변신시켰다.

생태계는 여러 구성요소의 합작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가 상업화 가능한 제품으로 탄생되고, 특정 도시에 하나의 산업군이 뿌리를 내

릴 수 있다. 이 환경을 만드는데 핵심 요체는 단연코 선도기업의 존재다. 시애틀에 MS라는 자석이 없었다면 아마존은 다른 곳에서 창업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시애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계 구성요소 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곳에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경로의존성이 만든 지역적 집중화 현상 때문이다. 이 과정에 선도기업의 존재는 필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휴렛패커드, 우리나라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GS칼텍스, 구미 전자산업 집적지에서 삼성과 LG, 현재 뜨고 있는 성남시 분당과 판교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그 역할을 했다.

광주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AI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단지가 경쟁력을 가진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하려면 관련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기업과 인재와 기술이 상호 결합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수십 개의 작은 스타트업만으로 생태계를 꾸려 갈 수 없다. 생태계 구축과정에 선도기업 존재는 필수다. 향후 우리나라 AI 산업을 이끌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KT 등이 광주에 등지를 해야 한다.

광주에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주축은 기업이다. 물론 정부와 광주시가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비를 쏟으면 생태계 조성에 힘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관 주도적 생태계 구축작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애틀을 만든 MS나 아마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생태계 구축과정의 필수요소다.

社說

무분별한 예산 투입 전남 관광특구 계속 방치할텐가

구례와 목포지역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요건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밑 빠진 독’이 되고 말았다.

1997년 정부가 지정한 구례 특구는 토지·마산·광의·산동면 일원 78,02㎡ 면적으로,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 온천관광지 정비 등 최근 10년 사업비만 488억원에 이른다.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돼 전남도가 2007년 9월 지정한 목포 특구는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6,87㎡ 면적을 보유하며, 평화광장 개발,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등에 110억원을 썼다. 이들 두 곳을 합해 5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그런데 구례의 외국인 관광객은 뚜렷한 감소세고, 목포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대상 특화 관광지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유치를 촉진, 거점으로 키우고자 전국 관광특구(제주 제외 전국 33개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

충 등 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는 서울 이태원, 부산 용두산·자갈치, 경기 고양, 동두천, 경남 창원 북곡온천 등 5곳을 선정했다.

구례와 목포 관광특구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 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목포의 경우 사정은 낫다고 하더라도 역시 요건 충족에 실패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처럼 실질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전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사업 추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활성화 지원도 매칭 구조여서 임무를 내기 힘들 테고, 결국에는 30여 개에 달하는 관광특구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예산도 없고 저질 수도 없는 전남도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대로 둔다면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그만둬야 한다. 특구를 전략 거점화하며 특색있는 상품 개발부터 고심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도록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광주·전남에서도 확인된 10대 디페이크 범죄 심각성

디페이크(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또래 여학생의 디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을 송치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 봇’을 이용,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압수한 휴대전화 속 수만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8건의 허위 영상물 중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시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4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4건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24명이며, 일부 영상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큰 처벌을 받는 범죄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피해 건수가 434건에 달하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최근 열흘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1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었다. 전체 피해자는 617명으로 학생이 588명으로 다수를 점했다.

경찰은 TF를 구성해 총력을 다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및 예방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한 신고 필요성 등 인식 변화는 고무적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디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낳는다. 사회적 경각심을 키워야 하는 때다.

기고

아동 행복지수와 자살예방의 연관성



김철호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1팀장

“힘들면 아프다고 말해. 내가 얘기해 주길 바래. 어떤 얘기도 들어 줄 수 있다.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친구의 어깨를 빌리죠. 그대의 어깨를 빌리죠. 어깨를 빌리죠.”

아역배우 출신이자 가수 활동으로도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양동근이 지난 2010년 군 생활 중 만난 ‘어깨’라는 곡의 가사다. 양동근은 당시 국방부 주체 자살 방지 캠페인 참여를 위해 정신과 의사와 교수를 찾아갈 정도로 열정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JTBC 비긴어게인’에서 진출한 가사와 양동근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줬다.

9월 10일은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만 9~24세)의 자살률은 11.1명으로 OECD 평균 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3년 8월 전국 아동·청소년 2천23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해 발간한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충동적 자살 생각 경험 이 있는 아동의 수치’는 2021년 4.4%, 2022년 7.7%, 2023년 1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더 늦게 수면하고, 야외 활동보다는 ‘집에만 있음’을 선호하며, 저녁 식사는 혼자서 외롭게 해결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4.7~4.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 10시 이후 수면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업성적이나 시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높으며, 지지 체계가 부족해 고민이 있더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그 결과 사소한 고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더 좋지 않고, 온라인 관계에 더욱 몰입하는 특성으로 이어진다.

연령대별 자살의 주요 원인은 10~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불화, 친구와의 갈등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결국 답은 ‘건강한 가족’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는 두 자녀의 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이자 뿌리인 가족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봤고, 경험해 보았던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특히 부모가 노력해야 하는 점을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

를 기반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균형적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수면시간을 줄이고 학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일정한 시간 이후로 온 가족이 전자기기의 사용을 멈추는 것, 잠자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수면일기도 참고할 수 있다. 수면일기는 매일 수면의 질과 수면시간, 양질의 수면을 위한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이 최상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아동이 혼자 밥을 먹지 않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특정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아침식사 시간을 지정, 긍정적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실외활동 장려를 위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아동기에 경험하고 탐색하는 모험 행위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가 아동 스스로 즐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여유도 필요하다.

출생률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인구절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살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투고

폭력없고 행복한 추석명절 만들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할 생각에 펜스레 어린아이처럼 가슴 한편이 설레고 아려온다.

수십 년 세월에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시골집, 학교, 뒷동산 등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으로 아지도 어릴 적 담장길 코스모스 향기를 뿜어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온 가족이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빈번히 가정 내 폭력사

건으로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으로 그 중 추석 기간에 2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평상시보다 명절 기간 79.7%가 증가한 것이다.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주로 평소 왕래가 없는 가족 사이에서 오랜 기간 쌓

인 불만이나 서로에 대한 참견, 상속 등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과 제재상 준비 등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명절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는 미덕으로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추석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주춘영·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장)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불황형’ 감소...전년 대비 4.4% ↓

지난해 경기침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온난화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일조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천42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작년 잠정 배출량(약 6억4천280만t)에 견줘 4.4% 준 것으로,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작년 배출량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연도별 목표(2023년 6억3천300만t)보다 적다. 주민등록인구로 계산하면 작년 1명당 약 12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환(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작년 2억400만t으로 전년(2억1천680만t)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환 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폭이 큰 부문은 건물 부문으로, 작년 4천420만t을 배출해 전년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은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작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1998년(67.6%) 이후 최저였다. 작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천490만t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